

고흥군, '선영흥 유허비' 등 4건 향토유산 최종 지정

체계적 보존 통해 지역 문화 위상 제고... 역사적 발자취 발굴 지속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 어전리 선영흥유허비'를 포함한 총 4건을 고흥 향토유산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향토유산은 ▲고흥 어전리 선영흥 유허비 ▲고흥 덕흥리 이견명 적려유허비 ▲고흥 마륜리 김해김씨 열부정려각 ▲고흥 세모재 등 총 4건이다.

금산면의 '고흥 어전리 선영흥 유허비'는 1913년 건립된 비석으로, 구한말 대표적인 호남 유학자인 송사 기우만이 비문을 썼다. 해당 비석은 가난한 이웃을 널리 돕던 우당 선영흥 선생의 은덕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 활동상이 재조명받게 됐다.

동일면의 '고흥 덕흥리 이견명 적려유허비'는 조선 후기 문신 이견명의 유배 생활과 덕행을 기록한 비석이다. 1768년에 세워진 비신(비 몸체)의 높이 2.2m에 달하는 대형 비석으로, 하단 받침돌에 새겨진 문양이 매우 독특하고 희귀해 보존 가치가 높다.

또한 동강면의 '고흥 마륜리 김해김

씨 열부정려각'은 고흥 신몽권의 처 김해김씨의 정려를 기리는 것으로, 내부에 남은 중수기 편액과 관련 기록을 통해 그 역사성이 명확히 증명돼 향토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서면의 '고흥 세모재'는 1905년에 건립된 재실 건축물로, 건축형식이 매우 독특하다. 고흥지역 재실에서 흔히 확인되는 누마루와 계자난간을 보이면서도 은돌방 전면의 '마루형 반자'라는 희귀한 건축 기법이 사용돼 주목받았다.

한편, 기존 향토유산 제5호였던 '봉암사 이어재'는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번 심의를 통해 군 향토유산에서는 지정 해제됐다.

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고흥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물들의 발자취를 적극 발굴해 고흥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양시, 2026 독서마라톤 대회 운영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04일간 이어지는 북러닝

광양시립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 광양시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한다.

독서마라톤 대회는 1쪽을 마라톤 거리 1m로 환산해, 사전에 설정한 독서 목표량을 기간 내 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립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지난 2025 광양시 독서마라톤 대회에는 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로 나눠 총 340명이 참여, 이 중 97명이 완주했다. 시립도서관은 완주자를 대상으로 독서일지를 심사해 우수자 15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3km, 5km, 10km, 20km, 42.195km 총 5개 종목으로 운영된다. 종목별 1일 평균 독서량은 ▲3km 10쪽 ▲5km 17쪽 ▲10km 33쪽 ▲20km 66쪽 ▲42.195km 139쪽으로, 이를 기준으로 목표 독서량을 완주에 도전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참가종목과 독서 분야를 선택한 후, 독서 일지에 도서명·저자·출판사·읽은 쪽수·독서감상평을 기록하면 된다.

광양시립도서관은 종목을 완주한 시민에게 독서마라톤 완주증서와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2027년 도서 대출 권수를 기존 10권에서 20권으로 확대하는 혜택



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심사를 거쳐 우수자 15명을 선정해 광양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현숙 도서관과장은 "2026년 독서마라톤 대회는 참여 이벤트를 확대하고 참가자 관리와 운영 전반을 보다 체계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서 마라톤 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lib.gwangyang.go.kr)을 확인하거나 도서관지원팀(☎ 061-797-3836)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신선호 기자

강진영화관, '영화가 있는 하루' 2026년에도 계속된다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관람료 할인과 함께 참여형 이벤트 풍성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강진영화관 '영화 보는 날' 프로그램이 2026년에도 이어진다.

'영화 보는 날'은 강진영화관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할인 상영을 통해 군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생활문화 정책이다.

강진영화관은 개관 이후 지속적인 할인 상영과 기획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누적 관람객 2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 내 문화시설로서 강진영화관의 역할과 군민 수요를 입증하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명절·공휴일 등을 연계해 '영화 보는 날'을 운영하며, 관람료 할인과 함께 군민 참여형 문화 이벤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영화관 이용 활성화는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연초 문화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오는 1월 4일까지 '겨울 특집 영화 보는 날'을 확대 운영하여, 기존 1일 단위 운영에서 벗어나 연속 운영을 통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영화 보는 날'은 개관 이후 강진영화관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군민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어 왔으며, 군은 2026년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영화 보는 날은 군민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관람객 수요와 운영 성과를 분석해 군민 체감도가 높은 문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국립남도국악원, 전남 사회복지시설에 문화 향유 기회 선사

전라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대상, 1월 5일부터 1월 13일까지 접수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지역 내 문화 취약 계층에게 전통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 찾아가는 국악원> 사업을 추진, 공연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연장을 직접 찾기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가·무·악 종합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 진행되며, 각 시설의 특성과 관람객 연령·구성에 맞춘 맞춤형 공연을 제공한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문화 소외 지역과 신규 참여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2026년 1월 5일(월)부터 1월 13일(화)까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 최종 선정 결과는 1월 16일(금) 게시되며, 이후 선정 시설에 대한 사전답사가 진행된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농사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농어촌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